

전북 서예가 '창암 이상만'展

10월 1일부터 KBS갤러리·미술관 솔 두 곳서 동시 진행

창암 이상만 서예가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KBS전주방송총국과 미술관 솔(대표 서정만)이 공동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연다. 29일 밝혔다.

10월 1일부터 KBS갤러리와 미술관 솔,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미술관 솔에서는 창암서예관을 통한 개관전을 시작한다. 이는 '창암 이상만'展이라는 단순하고도 당당한 당당함으로 준비된 전시다.

KBS갤러리는 10월 29일까지, 미술관 솔에서는 12월 24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며, KBS전시를 놓쳐도 미술관 솔에 방문하면 전시를 볼 수 있다. 창암 이상만의 깊은 묵향이 스며든 작품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북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전시가 될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솔 전시장을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063-285-7006)로 문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집스럽게 어느 지역보다도 청렴하고 멋스러운 곳이다.

가슴이 뭉클하다. 자신도 모르게 슬쩍 눈가를 닦게 된다는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평소 아무것도 아닌 전북이라는 말이 이럴 때 뭉클해 지다니...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이토록 자랑스러운 곳이 또 있을까.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너무 점잖은 전북인들은 우리만의 것을 가지고 싶다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 누군가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았다.

창암 역시 누구하나 붙잡고 나의 글씨를 알아 달라 하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행상들이

보고 가져간 작품들로 자연스레 유명해진 서예가다. 창암의 서첩 중 '창암집첩'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초대 통감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재미 기간에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아미구치 현립 대학 도서관 데라우치 문고에 소장돼 있었던 것을 현재는 경남대학교에서 일본 아미구치 현립 대학으로부터 1996년 98종 136점의 조선 관계 자료를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다. '창암집첩'은 그 중 1종이다. 현재 경상남도 유형 문화재 제509-125호로 지정돼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태생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다.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닌 듯 싶다. 창암의 서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도 우리네 사람들에겐 전주천이 힘차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 창암의 고무마 낙관도 처음 접해보는 물질의 특성에 관한 탐구와 연구로 보여지니 뭐 어쩐가, 전북인이 전북을 자랑스러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전북의 앞날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지역민이 아닌 우리 전북인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창암 이상만은 자신의 상황에서 오직 서예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전북의 서예가이다.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창암 이상만... 이렇게만 불러도 충분하다. 어떤 수식도 필요없다.

한편, 창암 이상만은 평생을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그것이 오직 단순한 서예의 익힘만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내포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유포됐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양반 교인이던 윤지충 집안에서 폐제분주(廢祭焚主)의 문제가 일어났다.

그가 연습한 여러 서예가들의 일서 작품을 보면 그 역시 내가 가진 것과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익히며 그것을 넘어서려 하부도 빠짐없이 노력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창암 이상만 서예가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KBS전주방송총국과 미술관 솔이 공동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연다.(미술관 솔 전시장)

'제5회 전북여성 미래포럼' 비대면 개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29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제5회 전북여성 미래포럼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젠더 거버넌스 타지역 모범사례를 통해 센터의 역할을 찾고, 전북지역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안태운 선임연구위원(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제를 맡아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 배경과 과정, 그 운영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경기지역 젠더 거버넌스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국주영은 위원장(전라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이수인 소장(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선희 상행등전주 소장(전주시 사회혁신센터), 김성숙 위원(전북젠더거버넌스 준비위원회) 등이 참여해 전라북도 젠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여성단체 주체들의 결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경기도 젠더 거버넌스의 체계적인 구축 사례와 전주 지역 젠더이슈 해결 사례 시사점을 분석,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됨을 피력하며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운애 센터장은 "타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지역 여건이 고려된 지역맞춤형 젠더 거버넌스 모델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관광 전문인력양성 교육생 모집

전라북도의 관광(MICE) 분야를 이끌어갈 전북관광전문인력양성 사업이 시작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윤·오프라인 강의로 구성된 '전북 글로벌 MICE 아카데미'를 개설,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취업준비생, 전라북도의 관광(MICE)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4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10월 13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10월 28일부터 2주간 MICE 산업에 대한 교육과 현장 전문가의 멘토링,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강화를 온·오프라인으로 배우게 되며, 우수교육생은 관련 기업에서 인턴십 기회도 얻게 된다.

재단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마이스 산업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산학이 힘을 모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마이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진흥팀(063-230-7470~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믹빙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전주서 공연

2021년 코믹빙의 로맨스 연극 공연인 '오! 나의 귀신님'이 전주에 상륙한다. 이 연극은 10월 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연극 '오! 나의 귀신님'은 관람하는 내내 웃음과 재미를 주지만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는 마음속에 작은 여운을 남기는 코믹빙의 로맨스다.

이에 따르면 "우리 재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극중 귀신이 자주 하는 대사로 관객들에게는 웃음을 유발하지만 사실 이 연극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담겨있는 말이다. 귀신은 지극히 평범한 것을 소원이라고 얘기하며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티켓 가격은 정가 R석 3만5,000원 S석 3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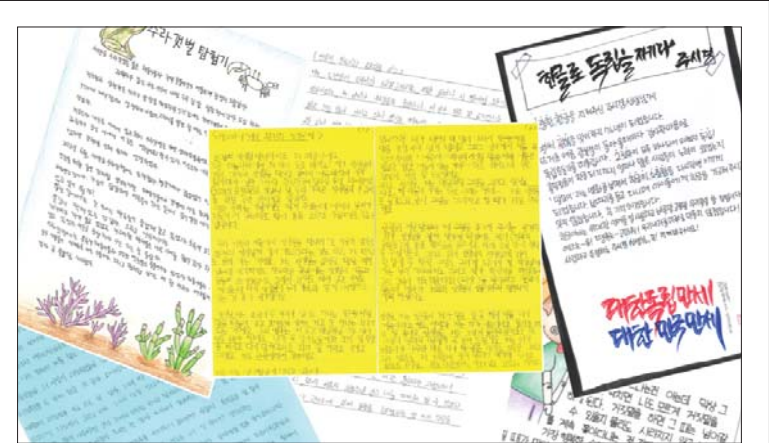
오! 나의 귀신님 예매사이트(<http://www.cusmore.com/h/16444356>)에서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극단 한해랑(1644-4356)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2021년 코믹빙의 로맨스 연극 공연인 '오! 나의 귀신님'이 전주에 상륙한다.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품.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113명 수상

전국 219개 학교 1251명 응모... 양예준 학생 '최명희 선생님께' 대상

'2021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에서 양예준(서울강서초 4년) 학생의 '최명희 선생님께'가 대상(전라북도교육감상)을 받았다. 29일 전했다.

손글씨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에서 주최·주관하고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올해 전국 219개 학교(전북 51개교, 전북 외 168개교)에서 1,251명의 학생이 작품을 응모했다.

심사 결과 양예준 학생이 대상, 김현수(전주한빛초 6년)·이다연(청원초 4년) 학생이 최우수상, 류서현(전주중원초 4년)·박주현(전주여울초 6년)·오재원(서울중계초 6년)·유승현(부산 남명초 2년)·이다혜(서울천호초 2년)·이시은(덕동초 5년)·이유진(이리영동초 6년)·이재현(전주여울초 6년)·현수아(거제양정초 4년)·홍태은(전주중원초 5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113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은 학교·학원·아동센터 등의 단체 참여가 줄었지만, 개인 참여가 크게 늘어 지난해와 비슷한 숫자가 접수됐다. 작품은 작년처럼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었다는 내용이 많았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찾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어린이 특유의 긍정적 태도로 일상 속 재미를 찾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 노력이 돋보였다.

심사는 이를 간 고희숙(화가), 김근혜(동화작가), 김미영(문학박사), 이경숙(동화작가), 전선미(최명희문학관 학예사), 정소라(화가) 등 각계 전문가가 맡았다. 이경숙 위원은 "편지와 일기, 동시, 독후

감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쓴 글씨마다 연필 향이 전해져 심사하는 동안 행복했다"면서 "음직임과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 쓰는 말도 과감하게 사용해 글이 살아 움직이는 듯 생동감도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소라 위원은 "담백한 이야기에 바른 손글씨로 쓴 작품, 화면 전면에 색을 이용하거나 부분에 강조를 준 작품, 글에 그림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작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했다"면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준 아이들이 어떤 날개를 만들어 날아오를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근혜 위원은 "바른 글씨체와 더불어 정성 어린 그림을 곁들인 작품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했다"면서 "상의 여부를 떠나 종이에 연필로 꼭꼭 눌러 쓴 내 이야기가 나를 한 뼘 더 성장시켰음에 의미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은 평생 만년필 쓰기 고집했던 소설가 최명희(1947~1998)의 삶과 문학 열정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함을 느끼고, 손으로 쓴 편지와 일기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에 관심을 두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까지 15년 동안 4만 5천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면서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고의 글씨 공모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수상 작품은 11월부터 네이버의 손글씨 블로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우수 작품은 최명희문학관 마당에서 전시된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